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11. 6.(금) 석간[온라인: 11. 6.(금) 14: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지역정보보호센터지원팀 박준성 팀장(전화: 061-820-3410, 전자우편: jspark@kisa.or.kr)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 장재영 센터장(전화: 042-479-4106, 전자우편: jangjy@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16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완료

- 대전센터 개소로 지역 정보보호 안전망 완성…중소기업 보안 강화 · 사각지대 해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이하 대전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전국 16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2026. 11. 6.(금)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기존 10개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했다.

* (기존) 강원, 경기, 광주,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충남, 충북(10개, 가나다순)
  (신규) 경남, 대전, 세종, 전남, 전북, 제주(6개, 가나다순)

이날 마지막 개소식이 열린 대전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첨단기술 기업,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행정 중심도시로, 인공지능(AI), 국방·우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정보보호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대전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서비스(SECaas) 도입 지원 ▲정보보호 교육 및 세미나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연구 기관, 정보보호 기업 등 전문가들과 함께 발족한 '대전 정보보호 전문가 포럼(D-SAFE)'을 통해 청소년, 고령층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성형 정보보호 협력 모델' 등 교육·연구·기술 분야의 '대전형 정보보호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현판 제막식과 센터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지역 대학·연구 기관 전문가와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협의회 통합회의와 정보보호 세미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정보보호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오픈소스 취약점 대응 등 최신 정보보호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기부받아 지역 봉사단체에 전달하는 '상생 나눔' 행사도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필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지역 전문가,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국 16개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기업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